

Capro 가격 2000달러 돌파 유력

2004년 아시아 수요 10% 증가 176만톤 ... 중국가격 8월 1950달러

CPL(Caprolactam)의 아시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타이완에서 섬유용을 중심으로 한 나일론(Nylon) 중합능력 증설계획이 잇따르면서 2004년에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약 176만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20% 이상 증가해 70만톤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수급밸런스의 타이트와 함께 원료 벤젠(Benzene) 가격급등으로 CPL 아시아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곧 톤당 2000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2006년에 걸친 중국과 타이완의 나일론 중합설비 증설계획은 2004년 28만톤, 2005년 46만톤, 2006년 50만톤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력 공급부족이나 금융긴축정책 등으로 중국의 증설계획은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이미 2004년 들어 수급밸런스가 타이트해지고 있다.

Toray가 6월부터 Nagoya의 8만톤 설비를 가동중지시키고 수출에서 철수했으며, 6월 완공된 카프로의 12만톤 신설비도 여전히 가동률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수급타이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CPL 수입량이 2004년 1-6월 24만톤 이상을 기록하는 등 급증하고 있어 2003년 37만8000톤에서 2004년에는 48만톤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타이완의 수입량도 전체적으로 36만톤 이상으로 증가해 2003년 29만8000톤에 비해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중국의 신증설 계획은 이미 완공된 중국석유화학그룹의 巴陵石油化學(7만톤)이 2004년 말까지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DSM도 2005년 8만톤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카프로의 울산 신설비가 풀가동하더라도 조기에 흡수돼 적어도 2005년까지는 타이트 밸런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밸런스 악화와 최근의 벤젠가격 상승으로 아시아 가격은 계속 올라가 중국의 8월 가격(CIF)은 톤당 1950달러로 최근 2개월 동안 약 15% 상승해 곧 2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유통단계의 나일론직물 제조가격까지 파급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있으며 나일론 섬유의 가격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CPL 가격상승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4/08/27>